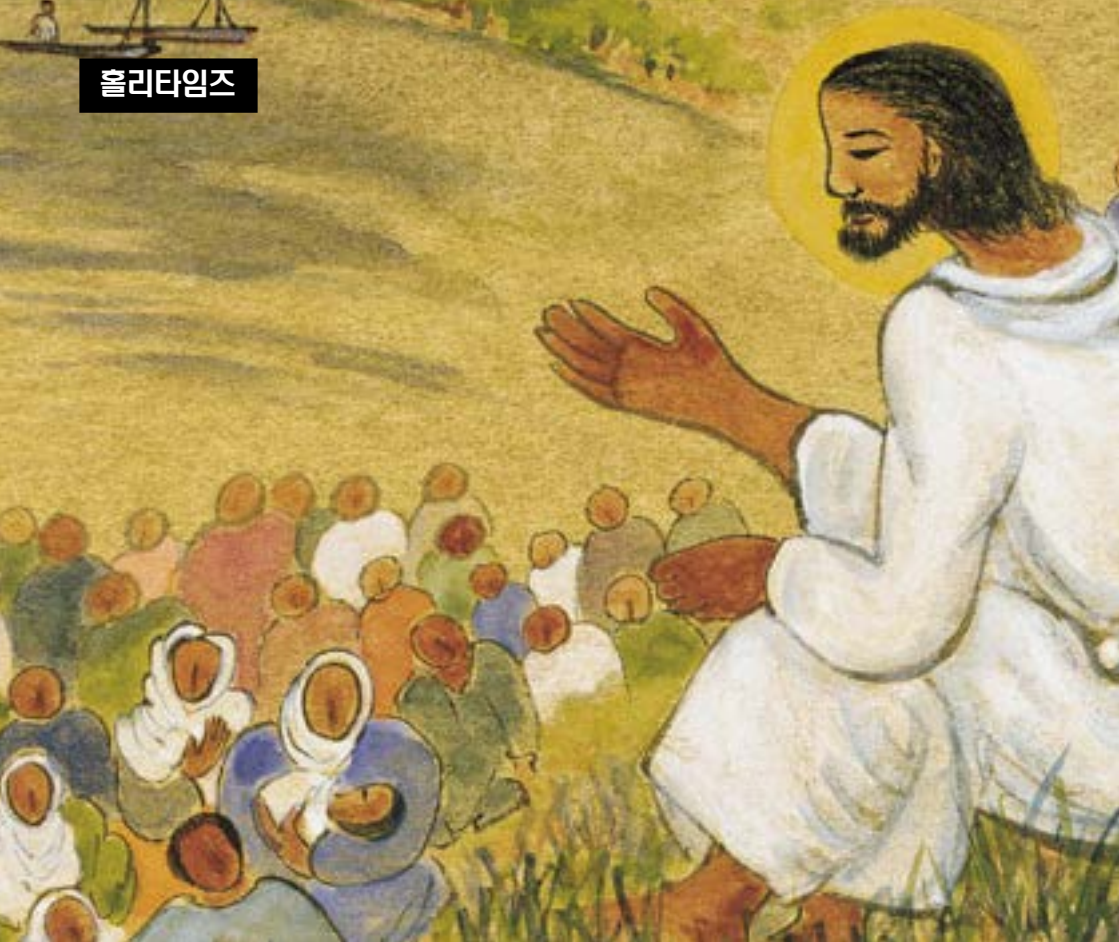


홀리타임즈



데이빗리 목사

파워설교반

교재

목 차

CONTENTS

- 제 1 장 설교를 위한 발성법 _ 5
- 제 2 장 파워설교의 핵심 _ 29
- 제 3 장 파워설교를 위한 준비조건 _ 63
- 제 4 장 파워설교자의 자세 _ 79
- 제 5 장 파워설교자의 모습 _ 93
- 부 록 설교 평가서 _ 108



수

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1 장

/

설교를 위한 발성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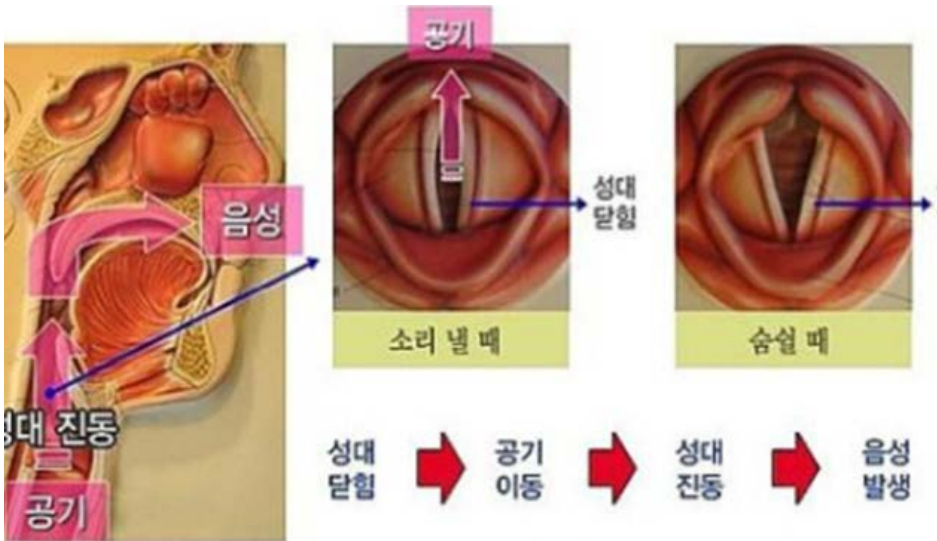
제 1 장 설교를 위한 발성법

훈련 목적

- * 강력한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 * 파워설교를 실습한다.
- * 파워설교를 통해 교회가 부흥될 수 있게 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언약궤기도를 드린다.
- * 국성연 영성훈련 필독서를 읽는다.
- * 댕글숙제를 열심히 한다.
- * 성령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한다.
- * 파워설교를 직접 해본다.



1. 발성구조

가. 발성이란?

- 발성이란 개념을 알기전에 먼저 소리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합니다. 소리란 물체의 진동이 공기에 의해 우리의 귀에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 사람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목안에는 성대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성대의 진동에 의하여 소리가 발생합니다. 만약 사람에게 성대가 없다면 숨소리 밖에는 내지 못합니다.
- 성대는 관악기에 비유하면 리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관악기에서 리드는 얇은 나무로 이루어져서 공기의 마찰로 떨리게 되고 이때 소리가 발생합니다.

나. 성대의 구조와 진동

- 사람의 성대에는 관악기의 리드와 비슷하게 생긴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성대는 좌우근육으로 구성된 리드가 이를 둘러싼 부속 기관들의 보조에 의해서 폐장으로부터 분출

되는 공기를 받아 진동함으로써 소리가 발생합니다.

- 성대는 후두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좌우로부터 반월상의 돌기물로써 구성되며, 그 좌우의 리드가 합쳐진 곳이 성문입이다.
- 성문은 발성근에 의해서 자유롭게 개폐되어 진동을 조절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음색을 만들어 냅니다. 성문은 보통 호흡시에는 마치 삼각형 모양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발성시에는 그 열림의 모양이时时 각각으로 변하면서 연속적으로 빠른 개폐운동을 합니다.

다. 목소리를 나쁘게 만드는 주요 요인들

- ① 큰 소리로 말하거나 고함을 지르는 것.
- ② 힘을 주어 말을 하는 것.
- ③ 운동을 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것.
- ④ 흥분하여 말하는 것.
- ⑤ 빨리 말하는 것.
- ⑥ 시끄러운 장소에서 말하는 것.
- ⑦ 극단적으로 높은 소리나 낮은 소리로 말하는 것.
- ⑧ 감기중에 목소리를 내는 것.

- ⑨ 이상한 목소리의 흉내를 내는 것.
- ⑩ 피로한 상태에서 말하는 것.

라. 목소리를 좋게 만드는 생활습관

- ① 안정된 상태에서 천천히 명확하게 말합니다.
- ② 상대방이 듣기 쉬운 장소에서 말합니다.
- ③ 편하게 나오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 ④ 넓은 곳이나 시끄러운 장소에서 말할 때는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2. 공명된 소리를 냅시다

가. 성대의 진동을 성음이라고 부릅니다.

- 그러나 이 성음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공명된 소리를 얻지 못합니다.
- 성음에서 만들어진 소리는 우리 몸의 여러기관들을 통해 공명됩니다.
- 공명에 도움을 주는 부분은 주로 횡경막, 인후(상인후, 중인후, 하인후), 비강, 구강, 혀와 이빨, 상악동, 전두동, 두개골과 뇌 등입니다.

나. 성대진동을 느껴보기

- 양 손바닥을 입에서 6~7cm 떨어진 곳에 대고 노래해 봅니다. 이 때 따뜻한 느낌이 들어야 하며 바람이 닿는 느낌이 들어서는 안됩니다.
- 심호흡을 한 후 3초정도 정지한 후에 다시 "스~"하고 소리 냅니다. 호흡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길게 지속 시켜서 천천히 내보냅니다.
- 이 때 내보내는 호흡은 길게 유지할 수록 좋으며 "스~"소리가 끊기지 않도록(30초 이상 지속) 합니다. "스~" 소리가 불규칙하다면 자신이 노래할 때 노래소리도 불규칙하게 소리난다는 것을 염두해 둡시다.

다. 제대로 된 발성을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공명이 필요합니다.

-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기타와 같은 현악기에 울림통이 붙어있는 것은 바로 이 공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 공명이란 서로 같이 울린다는 뜻으로 성대의 진동으로 음성이 발생되고 이 음성이 인체 각부분에 전달되어 인체의 각 부분이 진동하게

될 때 처음 성대에서 발생한 음성과 서로 어울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성대에서 발생한 음성을 크게 확대시키며 발성된 소리를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발성된 소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 공명을 잘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밤에 개가 짖는 소리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 까지 들리게 됩니다. 개가 짖을 때 자세히 살펴보면 복부의 횡경막을 사용하여 소리를 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호흡하여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 어린아이 때에는 복식호흡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복식호흡에서 흉식호흡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불규칙한 생활 그리고 긴장감 등으로 인하여 점점 복부가 수축하고 긴장하여 횡경막이 아래로 잘 내려가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라. 제대로 된 공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체의 각 부분이 진동을 해야 합니다.

- 우리 몸은 울림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몸이 긴장되고 힘이 들어가면 인체가 제대로 진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명을 얻기 힘듭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공명을 위해서는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
- 설교할 때 목이나 어깨에 힘이 들어있는 사람은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제대로 된 소리를 얻지 못합니다. 제대로 공명된 소리를 얻기 위해서는 몸의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
- 몸의 긴장을 풀 때 보다 성대의 진동과 몸의 공명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 공명을 잘할 수 있는 연습

- 비음을 이용해서 노래합니다. 비음은 "N" "M" "NG" 등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 단어를 사용할 때 "냐" "마" 등으로 하면 좋습니다.
- 도레미파솔...솔파미레도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연습을 해 봅시다. "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음을 올려서 연습해 봅시다.

- 다음은 "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 식으로 해 봅시다. 이것을 음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해 봅시다.
- 다음으로는 "음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연습해 봅시다. "음냐(도) 음냐(레) 음냐(미) 음냐(파) 음냐(솔)... 음냐(솔) 음냐(파) 음냐(미) 음냐(레) 음냐(도)" 식으로 음계에 맞춰가면서 "음냐"라고 비음을 강하게 이용해 봅시다..
- 이런 식으로 비음을 이용하게 되면 공명된 소리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4. 음색에 관하여

가. 설교자마다 다른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음색(音色)이라고 해서 눈으로 보이는 색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청각을 통하여 주관적인 질감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우리는 음색의 차이라고 합

니다.

- 어떤 사람은 같은 음이라도 굵직한 소리가 나는가 하면 가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맑은 소리가 있는가 하면 허스키 보이스도 있습니다.
- 이러한 차이는 성대의 구조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부속기관의 개인차에서 기인합니다.

나. 음색이 좋아야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 짜증난 목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짜증난 목소리를 듣기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 화난 목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가끔씩 화난 목소리를 낼 경우도 있겠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화난 목소리로 설교를 하면 모든 성도가 달아날 것입니다.
- 사나운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사나운 설교자는 성도를 잡아 먹으려는 짐승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당신의 목소리가 사나운지 살펴 보십시오.
- 할아버지(또는 할머니) 목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할아버지(할머니) 목소리가 나는 것은 몸에 힘이 빠지

고 특히 아랫배(단전)에 힘이 모아지지 않다보니 저절로 힘이 빠진 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런 목소리는 매우 늙어보이는 느낌을 줍니다. 80세 나이로 할지라도 30-40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목소리는 외모에 비해 거의 늙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드는 사람들이 늙은 소리를 내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 콧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콧소리는 설교자의 급을 떨어뜨립니다. 어쩌다 콧소리가 나는 것은 괜찮을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콧소리로 일관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콧소리는 성대의 울림을 사용하기 보다는 성대가 아닌 코에서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이는 코에서 소리를 내는 것이 성대에서 소리를 내는 것보다 더 편하고 쉽기 때문에 콧소리를 즐겨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성대 진동으로 인해 맑고 깨끗한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콧소리가 본인의 귀에 훨씬 좋게 느껴지고 안정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엔 발성 훈련을 받아야만 고칠 수 있습니다.

- 촌스러운 말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대신하여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촌스러운 말투나 지나친 사투리를 사용하는 것은 다소 촌스러운 설교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말투를 내지 마십시오. 권위있는 설교는 항상 "~습니다"식으로 문장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말투는 "~그래요"식으로 주로 끝부분을 "~요"로 끝내는 경우입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말투는 다소 설교를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설교내용이라 할지라도 권위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 음이 똑같은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설교 내내 거의 똑같은 톤(tone)의 소리를 듣는다면 모든 성도들이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음 높이를 다양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움이 섞여있는 목소리를 내지 마

십시오. 사람의 미움의 감정이 목소리를 통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미움의 감정은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느껴집니다. 나라에 대한 미움, 사회에 대한 미움, 남자 또는 여자에 대한 미움, 가족에 대한 미움, 배우자에 대한 미움, 성도에 대한 미움을 버리십시오.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용서하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음색이 달라집니다.

- 믿음이 없는 목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설교자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목소리는 매우 확신이 있으며 매우 담대하며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목소리는 담대하지 못하며 확신이 없으며 소극적인 목소리입니다.
- 소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하기 싫어서 억지로 설교하듯이 설교하면 성도들도 오기 싫은데 억지로 교회에 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설교는 교인들보고 다시는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 천천히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천천히 소리를 내는 사람은 은퇴자입니다. 이제 그만 땅에 묻혀야 할 사람입니다. 더 이상 말을 천천히 하는 사람은 단상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말을 천천히 한다고 당신이 멋있어 보이거나 권위있게 보이지 않습니다.
- 거만한 목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거만한 목소리와 권위있는 목소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설교자들은 거만한 소리를 마치 권위있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만한 목소리는 한물간 구식 설교 목소리입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거만한 목소리에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리를 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설교자의 목소리를 타고 전달됩니다. 거짓으로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될 때 설교자의 사랑표현이 거짓임을 성도들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 진실된 목소리를 냅니다. 진실된 목소리는 성도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이 세상은 진실된 사람들을 만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진

실된 목사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설교를 할 때 "나는
진실된 사람입니다"란 마음을 가지
고서 성도들에게 그 느낌을 전달하
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 애절하고 간절한 목소리는 성도의
심령을 열어줍니다. 애절하고 간절
한 목소리를 잘 활용하면 설교내용
과는 상관없이 매우 훌륭한 설교자
라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이는 이
미 성도들의 마음이 열렸기 때문입
니다. 무엇보다 성도의 마음을 여
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호소력이 있는 목소리를 내십시오.
똑같은 말이라도 평범하게 말하는
것과 호소력있게 말하는 것의 결과
는 다릅니다. 평범한 말투로 설교
할 때는 성도들에게 줄음을 선사하
지만 호소력있는 말투는 성도들에
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5. 파워설교를 위한 소리 연습

가. 울림이 큰 소리를 내는 방법

- 울림이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가

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의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

- 몸에 힘이 들어가고 긴장이 되어 있으면 뻣뻣거리는 소리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최대한 이용하여야 합니다.
- 유명한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울림이 큰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호흡을 최대한 이용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 물론 이를 위하여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리를 낼 때 그냥 나오는 대로만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깊은 호흡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던 공기를 서서히 뿜아 내듯이 내면서 나오는 공기의 진동을 이용하고자 노력을 하다가 보면 어느 날부터 울림이 큰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나. 발음상의 문제

- 우리가 특히 성악인들의 노래를 듣다가 보면 웬지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 이는 일부러 가사를 흐트러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드러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 예를 들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
고'라는 가사가 있다면 성악인들의
경우에는 '사-라-ㅇ-으-ㄴ 어-ㄴ 제
나 오래차-ㄱ고'라는 식으로 받침
을 동시에 발음하지 않고 약간의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발음하는 것
을 볼 수가 있습니다.
- 이렇게 발음함으로 인해서 된소리
나 거센소리에서의 발성시에 부담
감을 줄이며 듣는 이로 하여금 편
안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입니다.
- 그리고 경상도 사람의 경우에는 '괴'
와 '내'의 발음상에 문제가 있는데
이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여 극복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발음을 교정하기 위해 매우 좋은 방
법은 연필을 이빨 맨 앞쪽에다가
물고서 성경을 또박또박 읽는 연습
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습하
면 한 달도 안 되어서 발음이 쉽게
교정됩니다.

다. 소리를 앞으로 낸다.

- 소리를 앞으로 내어라의 가장 큰 교
훈은 무엇보다도 발성시의 주의력
을 입앞으로 집중시킴으로써 성대

주변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 소리를 앞으로 잘 내기 위해서 최대한 아랫배(단전)에 힘이 모아져야 합니다.
- 또한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횡경막을 최대한 팽창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라. 목을 연다.

- 목을 열 때 소리가 저절로 커지게 됩니다.
- 편안히 똑바로 서서 가슴을 편 상태에서 소리를 낼 때 목이 열리게 됩니다.
- 목이 닫혀져 있는 소리를 먼저 낸다음에 목이 열려져 있는 소리를 내보십시오. 닫힌 소리와 열린 소리를 반복할 때 훨씬 열린 소리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 코와 입으로 숨이 들어올 때에 인후부분(목 뒷부분)을 넓게 엽니다. 그와 동시에 숨이 기관지를 타고 내려갈 때에 횡경막이 내려가는 것과 팽창되는 느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 잘 안 되면 두 팔을 들고서 소리를

내 보세요. 그러면 잘 됩니다.

마. 아나운서처럼 소리를 낸다.

- 아나운서 소리는 대체적으로 중음만을 이용하는 소리입니다.
- 중음은 목 뒷부분의 인후 부분 중에서 가운데 인후 부분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 아나운서처럼 맑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목이 열려야 합니다. 목이 열린다는 것은 인후 부분에서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 숨을 들이마셔보세요. 그러면 목이 열리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소리를 내 보세요. 그러면 중인후 부분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나운서처럼 말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하지만 설교 내내 아나운서처럼 맑고 청아한 소리를 내면 모든 성도들이 수면제 먹듯이 잠에 취할 것입니다. 아나운서 목소리가 항상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바. 흥성과 두성 소리를 사용한다.

- 때로는 흉성으로 소리를 내고 때로는 두성으로 소리를 내야 합니다.
- 두성은 대체적으로 입천장 윗쪽에서 나는 소리를 말하고 흉성은 가슴 부분에서 나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목 뒷부분에 자리하는 인후부분에서 중인후 윗쪽부터 두성이고 중인후 아랫쪽부터 흉성으로 봅니다.
- 흉성 소리와 두성 소리를 사용해서 설교하게 될 때 훨씬 다양한 목소리를 구사할 수 있어서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으며 여러가지 감정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두성에서 소리를 낼 때 주로 슬픈 감정이나 기쁜 감정, 또는 우는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 흉성에서 소리를 낼 때 주로 권위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사. 우는 소리와 웃는 소리

- 우는 소리와 웃는 소리의 발성은 같습니다. 우는 소리와 웃는 소리는 정 반대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지만 소리를 내는 통로는 모두 같은

장소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 설교자는 우는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는 소리를 낼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을 때 성도들의 심령을 더욱 열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주 울면서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 설교자는 또한 웃는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웃는 소리는 매우 즐거움이 가득찬 소리입니다. 이러한 즐거움의 소리는 희망과 소망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는 권위적이지 않으며 가볍습니다. 이렇게 가볍고 즐거운 소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더욱 쉽게 열게해 줍니다.

아. 대화체와 연설체를 구분해야 한다.

- 요즘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 유형은 '소통설교'입니다.
- 소통설교는 대화체 형식으로 말을 할 때 보다 원활하게 가능해집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전체를 대상으로 설교한다는 생각보다 일대일로 말을 한다고 생각할 때 대화체가 가능해집니다.

- 책을 읽듯이 말하는 것은 연설체도 아니고 설교체도 아닙니다.
- 연설체와 대화체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끔씩 연설체로 하는 것은 좋지만 시종일관 연설체로 설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클라이맥스(climax) 부분을 만들어야 한다.

- 클라이맥스는 설교의 핵심되는 부분 또는 강조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 클라이맥스가 없으면 설교는 힘이 없어집니다. 정리되지 않는 설교와도 같습니다.
- 클라이맥스 부분에는 주로 연설체가 사용됩니다. 하지만 때때로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클라이맥스를 인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 말에 액션(표현)을 넣어야 한다.

- 호소력이 있어야 합니다. 호소력있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마치 우는 느낌처럼 말을 해야 합니다.
-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말을 할 때 말에 액션이 생기게 됩니다.

- 중요한 단어에 힘을 주거나 입술에 힘을 주고 단전에 힘을 주어서 발음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합니다.

수 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2 장

/

파워설교의 핵심

제 2 장 파워설교의 핵심

훈련 목적

- * 강력한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 * 파워설교를 실습한다.
- * 파워설교를 통해 교회가 부흥될 수 있게 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언약궤기도를 드린다.
- * 국성연 영성훈련 필독서를 읽는다.
- * 댓글숙제를 열심히 한다.
- * 성령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한다.
- * 파워설교를 직접 해본다.

1. 예수님을 전하라.

가.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십시오.

- 오늘날처럼 설교가 많은 때는 없습니다. 요즘은 ‘설교흥수시대’입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으며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오늘날의 설교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십자가’설교나 ‘보혈’설교나 ‘회

개'설교는 거의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마 4:17, 마 28:18-20). 오히려 세상적인 욕과 혼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전할 뿐입니다. 마땅히 파워설교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요 5:39).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성경을 읽을 때 지식과 정보를 구하려 하기 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노력해야 합니다(요 17:3).

나.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치유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 주님은 모든 문제(상처, 질병, 인생 문제)치유자이시며 해결자이십니다.
- 또한 주님은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을 가져다 주십니다.

다. 예수님을 전할 때 청중의 반응이 달라 집니다.

- 스테반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를

[마 4:17]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마 28:18] 예수께서 나아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 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 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비교해 볼 때, 두 사람의 설교에 대한 백성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 스테반의 설교를 들은 백성은 오히려 스테반을 죽이려 했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백성은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행 7장-스테반 설교, 행 2장-베드로 설교)
- 스테반의 설교는 주로 성경지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성경 공부식의 설교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의 기름부음, 부활의 소망,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지만 반응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행 7:54]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행 2:37]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2. 주님의 보혈을 증거하라.

가. 모든 설교에는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해야 합니다.

- 보혈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습니다 (요일 1:7).
- 보혈이 없는 설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설교일 뿐입니다.

[요일 1:7]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다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 설교에 주님의 보혈이 증거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는 주님의 보혈에는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며 삶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출 12:23).
-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히 11:19-20).

[출 12:23]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히 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주의 육체니라

3.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을 연결시키라.

가.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 파워설교를 할 때 "나는 선지자다"란 마음을 갖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백성에게 전달됩니다.
- 선지자는 다른 세상적인 것이나 인

본주의적인 것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할 뿐입니다.

나. 설교자는 단순한 선생이나 치리자가 아닙니다.

- 선생이나 치리자는 보다 많은 경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만 설교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것입니다(암 3:7-8).
-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지자로 삼으셨으니 당신이 해야 할 말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마 10:19-20).

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과 백성을 하나되게 하는 것입니다.
- 모든 설교자는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말 4:5-6, 마 17:11-13).

[암 3:7]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암 3:8]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마 10:19]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마 10:20]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 4:5] 보라 여호와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 4:6]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 17:11]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마

4. 성령님께서 주시는 설교내용을 잡으라.

가. 파워설교의 원고는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 파워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설교는 오로지 성경말씀을 읽고 연구함으로써 원고를 준비하는 것 뿐입니다.
- 이러한 원고설교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서 하는 파워설교보다 더 뛰어난 설교라고 말한다는 것은 무지한 생각입니다.

나. 성경 선지자들은 성령하나님의 음성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 다니엘은 뇌 속에서 이상으로 성령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듣고 보았습니다. 다니엘의 풍성한 지혜의 근원은 성령님이셨으며 다니엘은 뇌 속에서 이러한 성령님과 대화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단 7:1).

17:12]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마 17:13]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이 줄을 깨달으니라

[단 7:1]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행 18:9]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 바울도 성령님과 환상가운데 대화를 나눴습니다(행 19:9-10).

다. 당신은 설교하기 위해서 성령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 최소한의 성령님과의 대화시간은 3분입니다. 더 짧을 수도 있지만 3분 정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과워설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당신은 성령님께 “오늘 어떤 설교를 할까요?”라고 여쭙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무슨 설교를 하라고 전해 주실 것입니다(막 13:11).

라. 설교제목도 성령님으로부터 들으십시오.

- 설교제목은 설교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 설교를 하다보면 설교내용이 무엇인지 생각이 안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목을 생각하면 설교의 내용이 떠오르게 됩니다.
- 설교제목은 가급적 설교자에게 포커스를 맞춰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 자신이 먼저 설교에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행 18:10]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막 13:11]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마. 성경본문은 가급적 성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을 택하십시오.

- 성경본문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항상 당신의 의지를 먼저 생각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짧은 본문을 선택하거나 성도들에게 낯설은 성경본문을 선택할 때 성령님은 당신의 결정을 존중해 주십니다.
- 하지만 가급적 파워설교는 성도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본문을 가지고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수님도 백성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 13:1-9).
- 왜냐하면 성도가 이미 알고 있는 성경본문에 대한 영적인 내용을 전해들을 때 오히려 성도들이 영적인 설교에 매력을 느끼며, 파워설교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며,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가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 또한 설교본문을 넓게 잡으면 본문을 읽으면서 성도들이 본문을 먼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에 효과

[마 13:1] 그 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마 13:2]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마 13:3]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마 13:4]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마 13:5]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마 13:6]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마 13:7]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마 13:8]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백배, 혹 육십배, 혹 삼십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마 13:9]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적입니다.

바. 성령님과 설교에 대해 대화를 나눌 때
오늘 일어날 일들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설교를 통해 어떤 사람이 변화를 받을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많은 대화를 나눌수록 설교에 도움이 됩니다.
- 설교를 통해 어떤 사람이 치유를 받을지 알 수 있습니다.
- 또한 설교할 때 주의할 점이나 어떤 식으로 설교를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도우심은 설교자에게 큰 힘과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5. 설교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가. 설교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은
당신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설교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십시오.

- 그렇게 요약한 한 문장을 몇 번이고 되새기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오늘 어떤 내용의 설교를 전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 이러한 준비는 전쟁터에 나간 군사가 어떻게 적군을 만나 싸울 것인가 준비하고 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고 나가는 군사는 효과있게 싸움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 얼마나 한 스토리를 잘 전했느냐를 평가하는 방법은 청중들에게 설교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 만일 한 스토리를 잘 전했다면 청중들은 즉각적으로 설교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스토리가 아니라 여러 스토리를 전했거나 비록 한 스토리를 전했다 할지라도 긴장감 있게 전개하지 않았다면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 설교자 스스로도 자신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즉시 설교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6. 한 스토리(Story)를 전하라.

가. 여러 내용을 전하려 하지 말고 한 스토리를 전하도록 하십시오.

- 파워설교는 전혀 준비하지 않는 설교이기때문에 여러가지 주제를 설명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십시오.

나. 한 주제를 도끼로 계속 찍으십시오.

-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찍으면 반드시 나무는 넘어갑니다.
- 한 스토리에만 집중할 때에 청중들은 지금 당신이 어떤 내용을 전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 청중들이 당시의 설교를 기억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여러 나무를 찍었거나 한 나무에 집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 스토리를 만드십시오.

- 어떤 스토리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면 그 사건만을 잡으십시오.
- 한 스토리를 다룰 때 가급적 사건을 구체적으로 전개하십시오. 마치 유치원 선생이 유치원생에게 보다 사실적이고도 긴장감있게 스토리를 전하듯이 하십시오.

7. 본문에 충실하라.

가. 정해진 본문 안에서 충실히 말씀을 전하십시오.

-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라면 성경 본문말씀에 충실합니다.
- 성경 본문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설교를 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제멋대로 하는 설교자입니다.

나. 한 본문에만 충실하십시오.

-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꾸 여기저기 여러군데 구절을 다루지 마십시오.

-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경구절이나 필요한 다른 성경 본문을 언급할 수는 있지만 설교본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마십시오. 그럴려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 본문을 택해야 했습니다.

다. 본문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깊이 보여집니다.

- 본문에 충실하는 것은 마치 우물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물을 파면 팔수록 맑은 물이 나오게 됩니다.
- 본문에 충실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에 충실하는 것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8. 나무보다는 숲을 보라.

가.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나무를 본다는 것은 매우 구체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 숲을 본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 요즘 교회에는 강해설교가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강해설교를 유행적으로 하다보니 보다 구체적인 강해설교를 하기 위해 좀 더 많은 지식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나. 파워설교는 한 구절을 구체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명하기 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인 흐름을 더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한 이유 때문에 파워설교에 사용되는 설교본문은 짧은 구절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본문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보다 긴 본문을 설교본문으로 정할 때 성도들이 설교를 듣기 전에 이미 어떠한 내용을 설교할 것인지를 예측하기 때문에 오히려 파워설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9. 눈물이 있는 설교를 하라.

가. 먼저 설교자가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 설교자가 말씀에 은혜를 받을 때 눈물이 나옵니다(행 20:31).
- 설교자의 눈물은 성도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나. 설교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감동적인 설교여야 합니다.

- 설교시간을 가르치는 시간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르치려 할 때에 성도는 달아날 것입니다. 달아나지 않는 사람은 졸고 있기 때문입니다.
- 감동적인 설교는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절로 성도들이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듭니다.

다. 감동적인 설교는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 심령설교는 성경말씀을 우리의 심령과 연관을 시킬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는 성경말씀을 단순한 지식이 아닌 심령을 만지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심령설교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행 20:31]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딤후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딤후 3:17] 이

니다. 그래서 심령설교는 적용설교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설교를 듣는 사람은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야 하며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딤후 3:16-17).

-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질 때 즉시로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고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령설교는 우리 심령을 옥토가 되게 합니다(마 13:3-8).
- 하지만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지식설교나 성경말씀을 분석하는 강해설교는 사람의 혼의 영역만 자극하여 머리만 커지게 만들 뿐입니다.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도 강력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마 13:3]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마 13:4] 뿌릴새 더러운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마 13:5] 더러운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마 13:6]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마 13:7] 더러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마 13:8]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백 배, 혹 육십 배, 혹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0. 세상적인 것을 전하지 말라.

가. 세상적인 예화를 들지 마십시오.

-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다.
- 당신이 세상적인 예화를 드는 것은 당신이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나. 억지로 웃기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 청중들이 설교를 들을 때 웃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웃음은 막힌 마음을 열어주기에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 설교는 웃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개그맨이 아닙니다. 광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다. 세상적인 그 어떠한 시도나 노력도 하지 마십시오.

- 세상적인 지식을 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너무 집중해서 설교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 세상적인 뉴스나 세상적인 뮤지컬이나 세상적인 연극이나 기타 세상적인 것으로 설교를 대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전문가들도 세상적이기 때문에 유치해 보이는데 비 전문가인 당신의 모습은 더욱 유치해 보일 것입니다.

라. 오직 영적인 것만 전하십시오.

- 당신이 믿기 어려울지 모르나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세상적인 내용을 전하지 않더라도 당신보다 세상을 더 잘 압니다. 그들은 오직 당신에게서 영적인 것만을 들으려 합니다.

마. 파워설교는 성령님을 대신해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출 7:1-2).

- 하나님은 당신을 선지자로 삼으셨으니 당신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 당신이 세상적인 것을 전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세상의 신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출 7: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찌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출 7:2]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찌니라

11. 말씀에 삶을 녹여라.

가. 말씀따로 삶따로 전하지 말고 말씀에 당
신의 삶을 적용시켜 전하십시오.

나. 설교자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
과 다르게 살아가는 설교자는 참된 설교
자가 아닙니다.

- 자신은 죄를 지으면서 성도에게는
죄를 짓지 말라고 전하는 설교자는
힘있는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 삶과 설교가 다른 설교자는 성령충
만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좋은 설교를 전하지 못합니다.

다. 파워설교이기 때문에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보니 설교자의 삶이 그
대로 우러 나오게 됩니다.

- 설교자가 본문을 준비해서 설교하
면 자신의 삶을 어느정도 감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워설교를 하게
될 때 설교자가 자신의 삶을 여간해
서는 쉽게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고
스란히 자신의 삶이 설교에 묻어 나
오게 됩니다.
- 그래서 설교자는 늘 정결하고 거룩
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파워설교의

준비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2. 때로는 천 명에게 때로는 한 명에게 설교하라.

가. 설교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때로는 천 명에게 하듯이 할 때가 있으며 때로는 한 명에게 하듯이 할 때가 있습니다.

- 청중이 매우 적은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는 마치 수천 명이 모여 있는 것처럼 설교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보통적으로 설교자들이 청중의 숫자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러다보니 청중의 관심을 끌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 숫자가 적은 교회의 청중들은 설교자가 지나치게 청중에게 관심을 갖는 식의 설교에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수의 청중들의 경우엔 마치 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설교하는 그런 설교가 훨씬 편하게 느껴집니다. 매우 많은 청중 속에

있는 한 사람이지만 설교자가 한 사람에게 하듯이 하는 설교는 마치 자신에게만 설교하는 느낌을 받기 때 문입니다.

나. 복음은 천 명에게 하듯이 하십시오. 하지만 예화는 한 명에게 하듯이 하십시오.

-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큰 소리로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마치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하듯이 그렇게 전하십시오.
- 하지만 예화를 전할 때에는 한 명에게 하듯이 하십시오. 마치 친구를 바라보면서 대화를 나누듯이 예화를 설명하십시오.
- 시종일관 똑같은 톤의 목소리는 듣는 청중으로 하여금 지루함을 느끼게 합니다. 큰 소리와 속삭이는 소리를 섞어서 설교할 때 보다 효과적인 설교가 될 것입니다.

13. 살아있는 예화를 사용하라.

가. 예화를 적절히 사용하십시오.

- 설교내용은 잊어 버리지만 예화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 보통적으로 설교 후 3시간 이내에 설교제목을 잊어버리며 1주일 내에 설교내용을 잊어 버립니다.
- 하지만 예화는 몇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화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 살아있는 예화를 사용하십시오.

- 옛날옛적의 예화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옛날옛적의 예화를 사용한다면 청중들은 당신을 늙은 이로 여길 것입니다.
- 남의 예화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비록 남의 예화라 할지라도 당신 것으로 사용하십시오.

다. 예화는 그림입니다. 살아있는 멋진 그림을 그리십시오.

- 당신은 연필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며 볼펜으로 그리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물감이나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멋진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붓을 잡았으

면 그림을 잘 그려 보십시오.

- 청중들은 살아있는 감동적인 예화를 듣고자 합니다. 감동적인 예화는 멋진 그림입니다.
- 가장 강력한 예화는 간증입니다. 간증 중에서도 자신의 간증이 가장 멋진 예화입니다.

라. 한 번 사용했던 예화를 자주 사용하지 마십시오. 똑 같은 음식은 사람을 질리게 만듭니다.

- 똑 같은 예화라 할지라도 그때그때 새로운 옷을 입힐 수 있습니다. 설교 내용에 따라 얼마든지 예화에 새 옷을 입혀 보십시오.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연습하면 될 것입니다.
- 예화를 사용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모두 전하겠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는 오늘날 설교하겠다고 걱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 예화는 조금씩 뜯어먹는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같은 내용의 예화라도 수십 번 뜯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십시오.

14. 설교는 쉽게 하라.

가. 설교를 듣는 청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 어쩌면 당신은 청중들 앞에 벌벌 떨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청중들에 비해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 누군가 당신의 설교를 비평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 담임목사나 원로목사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 어쩌면 당신은 배우자나 자녀를 의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 설교를 어렵게 진행하지 마십시오.

- 당신 앞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 당신의 설교는 어려운 말로 진행됩니다. 이는 당신이 심리적으로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 당신이 사람을 두려워할 때 사람들의 마음은 당신을 무시하게 됩니다. 당신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있겠으나 그들도 얼마 안 있으면 당신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청중을 하찮게 여기십시오.

- 청중은 당신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결코 당신을 면접하기 위해 모인 사람입니다.
- 청중을 하찮게 여기십시오. 중학교 1학년 정도로 생각하십시오. 중학교 1학년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실제로 청중들은 모릅니다. 그러니 자신을 가지십시오.
- 중학교 1학년에 설교할 때 당신의 설교는 보다 쉬워집니다. 설교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의 마음도 어렵게 변합니다. 쉽게 해야 사람들 마음도 쉬워집니다.

라. 설교를 즐기십시오.

- 설교를 즐기는 사람은 고단수의 설교자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 당신이 설교를 즐기지 못하는 까닭은 청중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청중을 쉬운 상대로 여기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청중은 중학교 1학년입니다.

-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청중은 중학교 1학년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틀린 성경구절을 말했을지라도 저들은 당신이 틀린 성경구절을 말한 것을 모릅니다. 당신이 "아이구, 틀렸네요"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저들은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 중학교 1학년은 공부에 관심이 없습니다. 노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들은 심각한 설교를 듣기 위해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절대로 심각하지 마십시오. 돈을 받았으면 맛있는 설교를 대접하십시오.
- 강대상을 당신의 놀이터로 삼으십시오. 강대상은 오직 당신의 놀이터입니다. 억지로 노는 사람이 있습니까? 노는 것은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거룩한 놀이입니다.

15. 가르치지 말라.

가. 설교는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 훈련과 설교는 다릅니다. 훈련은 다소 가르치는 것이지만 설교는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 훈련도 가르치고 설교도 가르치면 성도들이 대가리만 커집니다.
- 가르침만 받은 성도는 지식은 많으나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런 교회는 담임목사의 머리도 크고 성도들 머리도 큼니다.

나.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입니다.
- 하나님의 뜻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지식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뜻은 메시지로 전해집니다. 선지자가 지식을 전하는 것 봤습니까? 하지만 목사가 지식을 안 전하는 것 봤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왜 하는 겁

니까? 누가 대상입니까?

- 당신의 손가락이 구부러져 있다면 손가락질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에게 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성도에게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성도들에게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할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전하십시오. 변화 받을 사람도 당신이라고 전하십시오.
- 못된 선지자는 오로지 말씀의 대상이 성도에게 향하지만 참된 선지자는 먼저 말씀을 통해 자신 스스로를 점검해 본 다음에 비로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6. 제스처를 사용하라.

가. 제스처가 없는 설교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 가능한 제스처를 많이 사용하십시오. 제스처를 많이 해야 설교가 지루해지지 않게 됩니다.

- 하지만 의미있는 제스처를 사용해야 합니다. 설교의 내용과 의미없는 제스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 때로는 말이 먼저, 때로는 제스처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주로 말이 먼저고 말에 제스처가 뒤따르지만 때때로 말없이 제스처만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훨씬 성도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게 됩니다.

나. 의미없는 제스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습관적으로 짝다리를 짚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껙패같아 보이며 경건치 못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 습관적으로 머리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떨구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머리를 떨굴 때 성도들도 함께 머리를 떨궈야 합니다. 왜 얼굴을 똑 바로 못 세워두시나요?
- 습관적으로 손을 들었다 놔다를 반복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설교자

가 그렇게 할 때에 성도들의 마음에는 그 손을 강력테옌으로 붙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다. 단어마다 제스처를 입히십시오.

- 단어에 맞는 제스처를 사용하십시오.
- 슬픔의 단어에는 슬픔의 제스처를 표현해야 합니다. 기쁨의 제스처에는 기뻐하는 제스처를 해야 합니다. 분노의 단어에는 분노의 제스처를 표현해야 합니다.
- 제스처는 손이나 몸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얼굴입니다. 얼굴로 모든 단어를 표현해야 합니다.
- 얼굴 표정으로 말의 의미를 표현해야 합니다. 얼굴로 슬픈 표정, 기쁜 표정, 억울한 표정, 분한 표정, 인내의 표정, 믿음의 표정, 확신의 표정, 근심의 표정, 사랑의 표정, 동정의 표정, 추운 표정, 두려움의 표정, 풍마려운 표정 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6. 눈빛을 맑게 하라.

가.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 눈은 설교자의 마음과 설교의 의도를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도구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성도들의 눈을 쳐다 보면서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해서 너무나 오랜 시간동안 한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서 설교를 하게 되면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목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날 설교가 많이 쳐다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성도의 눈을 공평하게 쳐다 봐야 합니다.

나. 눈으로 감정을 표현하십시오.

- 눈으로 설교의 내용을 전할 수 있습니다.
- 눈을 통해 설교자의 믿음, 사랑, 용서, 확신, 진실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통해 설교자의 미움, 증오, 원수값음, 시기와

질투, 억울함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 눈알을 한 가운데 있게 하십시오.

- 눈알을 자주 돌리지 마십시오. 눈알을 돌리려면 눈과 함께 돌아가게 하십시오. 눈은 가만히 있는데 눈알만 돌아가면 성도들이 웃습니다.
- 눈알이 습관적으로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닌데도 습관적으로 눈알이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런 설교자의 눈빛은 불안하고 긴장된 모습을 느끼게 만듭니다.
- 눈알을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눈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눈을 쳐다보면 눈알이 제멋대로 굴러다니지 않게 됩니다.

수

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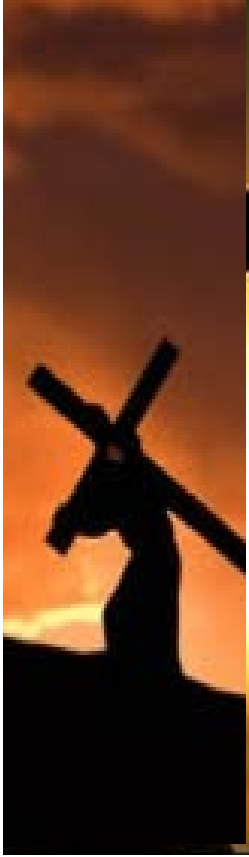
[마 11:28]



3 장

/

파워설교를 위한 준비조건



제 3 장 파위설교를 위한 준비조건

훈련 목적

- * 강력한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 * 파위설교를 실습한다.
- * 파위설교를 통해 교회가 부흥될 수 있게 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언약계기도를 드린다.
- * 국성연 영성훈련 필독서를 읽는다.
- * 댓글숙제를 열심히 한다.
- * 성령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한다.
- * 파위설교를 직접 해본다.

1.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라

가.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글로써 결과적으로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 되십니다(딤후 3:16).
-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나 지식과 지혜로 성경을 이해

[딤후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 수 없습니다.

나. 성령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성경을 풀지 마십시오. 이러한 해석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이 되게 하는 것뿐입니다. 절대로 성경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벧후 1:20).
-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풀 때 비로소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처럼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 오늘날 많은 설교가 있어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성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는 설교를 듣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설교자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다.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오직 정결, 거룩, 집중 뿐입니다. 이것 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길은 없습니다.
- 정결해지기 위해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끗해지십시오. 죄를 짓지 마

[벧후 1:20]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십시오. 스스로 성전을 깨끗케 유지하십시오(출 20:12-17).

- 거룩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끗해지십시오. 헛된 욕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십시오. 오직 속세를 떠나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십시오. 그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결코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출 20:3-6).
- 집중하기 위해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골방에 들어가야만 집중할 수 있으며 그곳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마 6:6). 골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십시오.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곳을 골방으로 만드십시오.

다. 성령님으로부터 어떠한 내용을 배워야 합니까?

- 먼저 성령님으로부터 오늘 전할 설교에 대해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 오늘 설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해 듣게

[출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 20:13] 살인하지 말지니라 [출 20:14] 간음하지 말지니라 [출 20:15]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출 20:16]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출 20: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출 20: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출 20: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 20: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마 6: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될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항상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서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마 10:19-20).

[마 10:19]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마 10:20]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 성령님으로부터 오늘 설교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설교요약을 전해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부터 많은 설교요약 내용을 들었다 할지라도 설교를 위해서는 한 문장으로 정리된 설교요약이 있어야 합니다. 그 요약된 문장으로 통해 파워있는 설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 성령님으로부터 설교제목을 전해 들으십시오. 설교제목은 설교요약을 축약된 표현입니다. 설교요약이 한 문장이라면 설교제목은 구나 절과 같은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 단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 설교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으며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우심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는 설교자에게만 있는 역사입니다.

2. 항상 회개하라

가. 목회자는 정결과 거룩해야 합니다.

- 목회자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반드시 거룩해야만 합니다(레 11:45).

[레 11:45]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깨끗케 합니다.

- 회개만이 우리를 깨끗케 합니다(요일 1:9).
- 회개할 때 비로소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만 비로소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요일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다. 정결과 거룩이 능력의 전부입니다.

- 아무리 설교 테크닉이 좋고 학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파워설교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설교자는 정결과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있는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3. 문맥을 파악하라

가. 문맥의 흐름을 파악하십시오.

- 성경은 글로 적혀져 있는 책입니다.
- 모든 글에는 그 나름대로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잡아야 성경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 문맥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 문맥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 문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까?
- 문맥을 통해 내가 새롭게 알게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 문맥을 통해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 문맥을 통해 내가 회개할 부분은 무

엇입니까?

다. 문맥의 나무와 숲을 파악하십시오.

- 때로는 나무를 봐야 하지만 때로는 숲을 봐야 합니다.
- 나무를 바라본다는 말은 '단어'나 '구'(phrase)나 '절'(clause) 또는 한 구절을 의미합니다.
- 나무만 바라볼 때에 문맥의 전체적인 흐름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흔히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가 생겨나는 것은 숲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무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 숲만 바라본다는 것은 성경구절을 구체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서 어떠한 제목을 가지고서 성경 이곳저곳을 건너다니면서 설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러한 설교로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이런 설교를 구식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좀처럼 은혜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강해설교'가 있지만 그보다

더 좋은 설교는 '적용설교'입니다.
적용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삶에 적용시키는 설교를 말합니다.

- 숲만 바라볼 때에는 보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설교는 사람들이 금방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깊이가 없는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다. 원어를 연구하십시오.

- 원어를 통해 성경을 이해할 때에 보다 깊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으며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 해박한 원어지식이 없더라도 원전 분해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때 어느 정도 깊이있게 원어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 여러가지 좋은 유료프로그램들이 있지만 무료 프로그램 중에서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우 좋은 프로그램인 '내사랑하는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유료 프로그램

들은 직접 구입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내사랑하는책(설치법):

[https://drive.google.com/
open?id=0B7Txr0PfeTSXU
1A3d3dPZkczaVk](https://drive.google.com/open?id=0B7Txr0PfeTSXU1A3d3dPZkczaVk)

2) 내사랑하는책(프로그램):

[https://drive.google.com/
open?id=0B7Txr0PfeTSXT3
hDT2VKNkdrb2M](https://drive.google.com/open?id=0B7Txr0PfeTSXT3hDT2VKNkdrb2M)

4.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라

가.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연구하십시오.

- 성경의 내용은 역사적인 내용으로 이뤄졌습니다. 소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입니다. 시가서라 할지라도 역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 역사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보다 올바른 성경해석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나. 내가 주인공이 되십시오.

-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 그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 그리고 위해서는 내가 문맥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될 때 성경 말씀이 보다 구체적이며 사실적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 이렇듯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성경 내용을 성도에게 전할 때 파워있는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다. 성경배경을 오늘날 시대의 배경에 적용시키십시오.

- 어떤 목사는 성경의 배경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뿐입니다.
-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배경을 오늘날의 배경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잘 하는 사람이 진정 파워설교자입니다.

5. 성경을 준비하라

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십시오.

-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권위있는 해석이 됩니다. 이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 너무 지나치게 성경주석을 이용하거나 다른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인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설교를 하는 꼴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나. 성경 전체의 흐름을 항상 생각하면서 성경을 이용하십시오.

- 아무리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인용한 성경구절이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맞지 않는 구절이라면 잘못된 해석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해석은 목사의 주장을 설득시키기 위해 성경을 이용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 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과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경구절을 인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십시오.

-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을 증거합니다(요 5:39, 요 17:3).

-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함께 일하십니다(창 1:26).
-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없이는 누구도 구원 받지 못합니다(계 7:14).
- 성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아담의 원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요 19:30).
-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요 14:6, 히 10:19-20).
-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며 천국과 지옥의 삶을 살게 됩니다(히 9:27).

라. 성경구절을 많이 암송하십시오.

-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있어야 합니다.
- 비록 설교원고를 미리 작성해서 설

[요 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 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창 1: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계 7:14]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 19: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요 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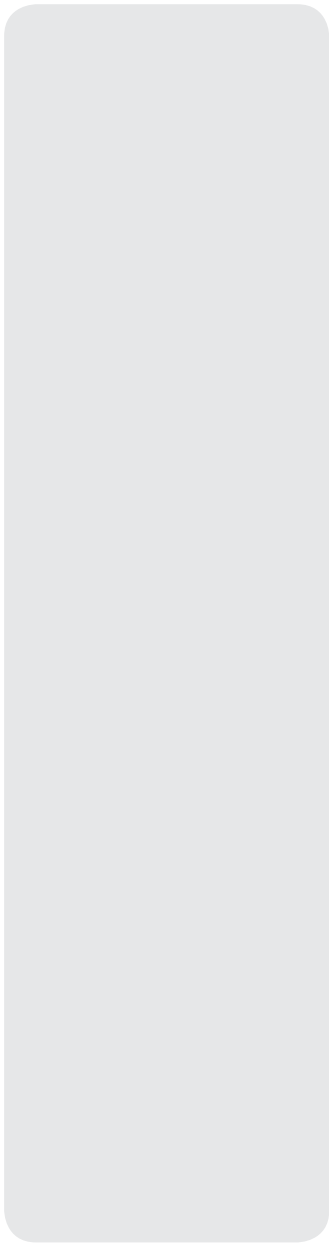
[히 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히 9:27]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설교는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성경구절을 많이 암송해 놓으면 시기적절할 때에 암송해놓은 성경구절로 적절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 "성경에서 말하기를..."이런 식으로 성경구절을 인용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목사들도 이런 식으로 많이 말합니다. 유명한 목사들이 이 정도이니 유명하지 않는 목사들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 그래서 유명하지 않는 목사들은 "성경에서 말하기를..."이란 말도 안 꺼냅니다. 왜냐하면 준비해 놓은 성경구절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여 틀릴까봐 염려되어서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말씀인지 논어책에서 본 말씀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성령에서 말하기를..."이란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 하지만 평소에 성경구절을 많이 암송해 놓은 사람은 정확하게 "어느 책 몇 장 몇 절에 언급되었듯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있는 목회자의 설교가
파워설교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
겠습니까?



수

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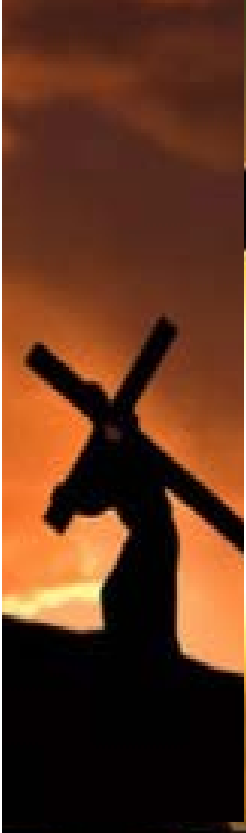
[마 11:28]



4 장

/

파워설교자의 자세



제 4 장 파워설교자의 자세

훈련 목적

- * 강력한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 * 파워설교를 실습한다.
- * 파워설교를 통해 교회가 부흥될 수 있게 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언약궤기도를 드린다.
- * 국성연 영성훈련 필독서를 읽는다.
- * 뎃글숙제를 열심히 한다.
- * 성령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한다.
- * 파워설교를 직접 해본다.

1. 멋이 있어야 한다

가. 멋은 권세입니다.

- 멋있는 사람은 뭔가 있어 보입니다.
뭔가 달라 보입니다.
- 멋있는 옷을 차려 입은 사람은 멋있습니다. 얼굴이 잘 생겨서 멋져 보이기도 하지만 웬지 모르게 멋져 보이는 것은 왜 그럴까요?
- 사람이 멋져 보이는 것은 그 사람에게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 권세있는 사람은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도 멋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회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대기업 회장이 멋진 양복을 입고 있어서 멋져 보입니까? 그가 멋져 보이는 것은 그에게 있는 권세 때문입니다. 웬지 모르게 그의 모습에는 권세의 아우라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대기업 회장에게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권세가 있습니다.

나. 기독교인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도 그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서도 아우라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에서 권세가 품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음식 냄새가 품어져 나오듯이 권세의 아우라가 품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 그런 권세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 한 마디에 사람들이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세이며 그것이 바로 '멋'입니다.
- 당신에게 그런 멋이 있습니까? 한번 당신 스스로를 살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의 말 한 마디에 벌벌 떨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우러러 보고 있습니까? 당신이 생각해도 당신의 모습에서 아우라가 품어져 나오니까? 꼭 양복을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멋이 있는 사람은 잠바 차림도 멋있습니다. 유명한 영화배우나 탈렌트를 생각하십시오. 멋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멋진 이유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권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당신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 우리 믿는 자에게는 당연히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권세를 받으셨습니다(행 10:38).

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를 제자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지신 똑 같은 권세를 저들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권세는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막 6:7).
- 그런데 왜 당신에게는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도대체 뭘 잘못 먹으셨습니까?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살아온 것입니까? 왜 당신

[행 10:38]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막 6:7]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에게는 권세가 없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제자 맞나요? 여전히 기독교인인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되신가요? 그런데 왜 당신에게는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 당신에게서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권세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세는 활용해야 합니다. 대기업 회장이 방구석에 쳐박혀서 하루종일 게임을 하고 있다면 더 이상 그에게는 권세가 없습니다. 물론 그는 대기업 회장이기 때문에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하는 시간에는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게임하는데 무슨 권세가 필요하겠습니까? 게임하는 것이 무슨 중요한 일이라고 권세가 드러나겠습니까? 대기업 회장에게 있어서 권세가 드러날 때는 회사를 인도하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나타날 때입니다. 이것은 게임할 때와 다른 분위기입니다.
- 당신에게서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게임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권세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권세를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불쌍한 자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병든 자를 치유했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문둥이를 고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권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막기도 반장입니까? 하기 싫지요? 하고 싶지 않지요? 교회 집사입니까? 잡사 아닌가요? 술 쳐먹는 잡사. 도박하는 잡사. 개지랄떠는 잡사.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니시나요? 교회가 도박장입니까? 교회가 술집인가요? 교회가 모텔인가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처럼 살 수는 없나요?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인가요? 어제와 다를바 없이 사는 모습이 최고의 삶인가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삶인가요? 하루종일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 모습

이 처량해 보이지는 않나요? 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지 않는 것일까요? 도대체 언제 권세를 활용할 건가요?

2. 맛이 있어야 한다

가. 기독교인은 맛이 있어야 합니다.

- 맛은 진국입니다. 진국은 먹으면 압니다. 먹으면 진국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진국이 되려면 푹 고아야 합니다. 오래도록 삶아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맛이 납니다.
- 이러한 맛을 가리켜 우리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권능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하나님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아버지께서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나. 예수께서 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 우리는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맛이 없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생긴 것은 남자인데 남자 구실을 못하면 개보다 못합니다. 생긴 것은 여자인데 여자 구실을 못하면 돼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마 7:6).
- 이는 개와 돼지에게는 능력이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맛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기독교인은 맛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어둠의 그늘진 곳에 버려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밝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소금이 있어야 진정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질 뿐입니다. 비록 당신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맛을 잃으면 버려질 뿐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마 5:13).

[마 7:6]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마 5: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 우리는 개나 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값진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값진 능력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어둠을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소금으로 모든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사람들은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사람들은 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 맛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맛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주님을 통해 빛으로 나아왔듯이 우리를 통해 어둠 가운데 놓인 형제가 빛으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어둠의 형제를 빛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입니다. 세상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입니다. 고귀한 신분을 가진 우리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맛이 있는 것입

니다. 당신은 그 맛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맛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갑니까?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갑니까?(벧전 2:9)

[벧전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3. 못이 있어야 한다

가. 기독교인은 못이 필요합니다.

- 못은 박는데 사용합니다. 박아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못에 의해 박히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계실 때 로마군병들이 그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만일 군병들이 못을 박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아나셨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포기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로마군병들이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뛰쳐 나올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못은 우리를 도망 못하게 만듭니다.
- 우리는 십자가에 정과 욕을 못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야 도망치지 못합니다.

그래야 꿈쩍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야 온전히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못이 없으면 도망치고 맙니다. 못이 없으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못이 없으면 여전히 정과 욕이 살아 꿈틀 거립니다. 더럽고 추악한 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맙니다. 못 때문에 그나마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갈 5:24).

[갈 5:24] 그리스도 예수
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 못은 주님을 뜻합니다.

- 우리에게 못이 박힐 때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박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만 살아갑니다.
- 내 피는 주님의 피입니다. 더 이상 내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닙니다. A형도 아닙니다. B형도 아닙니다. AB형도 아닙니다. O형도 아닙니다. 내 피는 J형입니다. Jesus 형입니다. 더 이상 인간의 냄새가 나는 피가 아닙니다. 더 이상 지랄맞은 피가 아닙니다. 더 이상 정욕대로 살아가는 피가 아닙니다.
- 내 마음은 주님으로 가득채워져 있

습니다. 주님이 못이 되어 내 손과 발에 박히셨을 때 내 마음도 함께 박혔습니다. 주님의 못이 내 심령에 꽂혔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나는 주님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작은 예수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에 가득히 존재하십니다. 이전에는 한 쪽 구석에만 존재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나의 온 마음을 장악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살아가십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겉모양은 나이지만 속사람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주님만 남아 계십니다(갈 2:20).

[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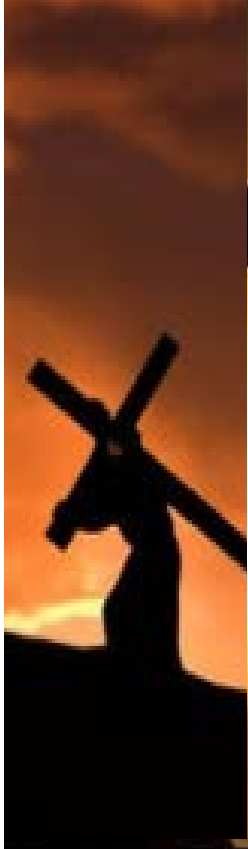
수

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5 장

/

파워설교자의 모습

제 5 장 파워설교자의 모습

훈련 목적

- * 강력한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 * 파워설교를 실습한다.
- * 파워설교를 통해 교회가 부흥될 수 있게 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언약궤기도를 드린다.
- * 국성연 영성훈련 필독서를 읽는다.
- * 댓글숙제를 열심히 한다.
- * 성령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한다.
- * 파워설교를 직접 해본다.

1. 눈물이 있어야 한다

가. 파워설교자는 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 눈물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 눈물이 없는 설교자는 파워설교자가 아닙니다. 단지 세상의 강사와 같습니다. 파워설교자는 눈물이 흘러야 하며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 당신은 눈물이 있는 파워설교자인가요?

나. 눈물은 사모함입니다.

- 사모함은 눈물을 만들어 냅니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사모할 때에 눈물이 흐른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 설교자는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모할 때 설교자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게 됩니다.
- 눈물은 주님께 바치는 마음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눈물이 말라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주님께 향할 때에 눈물이 고이게 됩니다.
-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십시오(시 24:1).
- 당신은 눈물이 있는 설교자입니까? 당신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다. 눈물은 회개할 때 생겨납니다.

- 회개할 때 눈물이 나옵니다.
- 회개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시 42:1] 하나님이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의인보다 죄인을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입니다(막 2:17).
-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없는지 깨닫는 사람입니다.
- 회개하는 사람은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상석보다 말석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높은데 거하기 보다 낮은데 거하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밑으로 들어가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마 23:12).

[막 2:17]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 23:12]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 눈물은 감사할 때 만들어 집니다.

- 감사가 있을 때 눈물이 나옵니다.
- 당신은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 얼마나 감사를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 얼마나 감사를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 감사해야 할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나 무시하지는 않았습니까? 감사해야 할 사람에게 전혀 감사해 본 적이 없지는 않았습니까?

- 당신은 얼마나 주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까?
- 만일 당신이 주님께 감사를 표현한다면 눈물이 나올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행하신 것들을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스며든다면 틀림없이 당신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마. 눈물은 감격스러울 때 생겨납니다.

- 감격은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흐르게 합니다.
- 당신은 삶 가운데 얼마나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까? 당신이 흐르는 눈물은 당신이 얼마나 감격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 눈물이 있는 사람은 감격스러움을 많이 느끼지만 눈물이 없는 사람은 감격을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감격적인 순간이 없어서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격을 느끼지 못해서 못 느끼는 것입니다. 이는 눈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 눈물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만들어집니다.

- 십자가를 보고서 눈물이 흐르지 않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바리새인과 같다면 십자가를 보고서도 눈물이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 파워설교자는 눈물로 설교를 해야 합니다. 눈물이 없다는 것은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눈물이 없다는 것은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음을 뜻합니다. 눈물이 없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 눈물은 예수님을 만날 때 흐르게 됩니다.

-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눈물을 흐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 당신은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파워설교자는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설교할 때에 주

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 성도는 설교자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보길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얼굴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있듯이 당신의 얼굴에 주님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고후 4:16).

[고후 4:16]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 눈물은 사랑을 받을 때 생겨납니다.

- 사랑 하는 사람도 눈물이 흐르지만 사랑 받는 사람에게서도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 당신이 만일 사랑 하는 사람이라면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 만일 당신이 눈물 없이 설교를 한다면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사랑을 전혀 받고 있지 않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 파워설교자는 주님을 깊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파워설교자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 땀이 있어야 한다

가. 파워설교자는 땀이 있어야 합니다.

- 파워설교자에게는 땀이 있어야 합니다.
- 땀이 없는 설교자는 밋밋한 설교자입니다.
- 땀이 있는 설교자는 설교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멋져 보입니다.

나. 땀은 열정이 있을 때 생겨납니다.

- 열정이 있는 사람은 땀을 흘립니다.
- 당신은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설교를 할 때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열정적인 설교자는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열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설교자는 열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설교자는 열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열정적이지 않는 설교자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 땀은 헌신할 때 생겨납니다.

- 헌신적인 사람에게서 땀을 자주 보게 됩니다.
- 헌신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설교자는 성도를 위해서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해 설교하는 것은 곧 성도를 위한 헌신이고 주님을 위한 헌신입니다.
- 땀이 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헌신적인 사람은 땀이 나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땀이 흐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땀은 곧 헌신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은 헌신적인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성도들도 헌신적인 설교자를 좋아하십니다.
- 헌신적인 사람은 충성스런 사람입니다. 주님은 충성스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눅 16:10).

[눅 16:10]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 땀은 정성을 다할 때 생겨납니다.

- 정성을 다할 때 땀이 생겨납니다. 이는 온 세포들이 정성을 다하기 때문

입니다.

- 하나님은 정성을 다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마 22:37-38).
-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설교하십시오. 대충 설교하지 마십시오. 정성을 다하십시오. 심혈을 기울이십시오. 안간힘을 다 하십시오.

마. 땀은 집중할 때 생겨납니다.

- 뭔가 집중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땀이 나게 됩니다. 그만큼 세포들이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 설교자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집중하지 마십시오. 성도가 몇 명 왔는지 너무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 집중할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설교를 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성령님께 집중할 때 성령님이 직접 설교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설교를

[마 22: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마 22: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시도록 하기 위한 작업이 이뤄질 때 저절로 땀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 땀은 성령의 불로 만들어집니다.

- 성령의 불은 땀을 만들어 냅니다. 성령의 불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뜨거울 때 땀이 납니다.
- 성령의 불은 곧 은사입니다. 성령의 불은 곧 능력입니다. 성령의 불은 곧 성령의 기름입니다. 성령의 불은 곧 생명수입니다. 성령의 불은 곧 은혜입니다.
- 설교자가 능력을 발휘하고 은사를 드러내고 기름부음을 전할 때 땀이 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에게 전달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작업은 그리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땀이 나는 것입니다.

3. 침이 있어야 한다

가. 기독교인은 침이 있어야 합니다.

- 침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침이 튀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침이 튀겨진다는 것은 입 밖으로 튀겨진다는 것입니다.
- 파워설교자는 침을 많이 튀길 수 있어야 합니다. 침이 많이 튀겨질수록 더욱 강력한 파워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침은 외칠 때 튀겨집니다.

- 침은 외칠 때 튀겨집니다. 단순히 기도한다고 침이 튀겨지는 것입니다. 속으로 웅얼이 하듯이 하는 기도로는 침을 튀길 수 없습니다. 외침이 있는 기도와 간구는 침을 튀기게 합니다.
- 파워설교자는 외쳐야 합니다. 설교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침을 튀김으로 하는 것입니다. 침이 멀리 튀겨질 수 있도록 더 외치십시오. 그러면 파워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침은 파워가 있을 때 튀겨집니다.

- 파워있게 외치는 사람은 더욱 침이 많이 튀겨집니다.

- 교양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말할 때 침이 튀겨지는 모습에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자는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교양스런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모르게 침이 튀겨질 것입니다.
- 침을 튀기면서 설교하는 설교자를 향해 "교양없다", "촌스럽다", "거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반응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반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걸로 만족하십시오.

라. 침은 선포할 때 튀겨집니다.

-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선포하듯 하십시오. 웅변할 때 침을 튀기듯 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침을 튀기듯 해야 합니다.
- 침이 사방에 튀게 하십시오. 침에 맞은 귀신은 즉시로 떠나갈 것입니다. 침 맛을 제대로 본 귀신은 다시는 얼씬치 않게 될 것입니다. 최대한

침이 멀리 튀겨 나갈 수록 하십시오.
온 성도 얼굴에 침을 튀겨지게 하십시오.
침 맞은 성도는 은총만 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침 맛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수

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부록

/

설교
평가서

설교평가서

설교평가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설교평가서를 통해 설교자가 힘을 입고 더욱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음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 _____

1. 설교자의 영광체험을 통해 얼마나 기쁨부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2. 설교자의 영광체험의 어떤 부분을 본받고 싶습니까?
3. 설교자의 영광체험인도를 통해 당신에게 나타난 증상은 무엇입니까?
4. 설교를 듣고서 무슨 내용인지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5.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이해하기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6. 설교자의 목소리의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호소력, 선명함, 간절함, 진실함, 속도감, 자신감, 적극성, 설득력, 담대함 등)
7. 설교자의 목소리의 안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맥없음, 단조로움, 두려움, 소심함, 짜증감, 분노감 등)

8. 설교자의 제스처 중에서 하지 않았으면 하는 제스처나 해서는 안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9. 설교자가 설교 중에 다음 사항 중에서 잘 강조하였던 부분은 무엇입니까?(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보혈 등)
10. 설교자는 설교 마무리를 위해 적절한 클라이맥스와 결단의시간을 어떻게 잘 처리했습니까?
11. 설교자의 설교 중에서 본받고 싶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적절한 예화, 설득력, 클라이맥스, 결단의시간, 재미나는설교, 찬양인도, 영광체험 등)
12. 설교자의 설교 중에서 본받고싶지 않았던 부분은 무엇입니까?(세상농담, 음담패설, 지나친제스처, 화냄, 짜증냄, 인신공격, 강요, 협박, 삼천포, 언어폭력, 비성경적인설교 등)
13. 설교자에 대한 칭찬을 적어 보세요(가급적 많이).

과위설교반 교재

초판발행 2017. 6.30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175-1
전 화 010-3909-8844(손에스터목사)
홈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국제신학교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이런 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 ▶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 기도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각종 성령의 은사(대언예언, 신유은사, 영분별, 방언통변 등)를 통해 강력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목회자의 소명이 있으나 생활책임을 위해 불가불 여가시간으로 신학교를 다니고 싶은 분!

신학생 모집요강

▶ 사역학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목회학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사역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목회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국제신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국제연합)총회의 신학교로서 강도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습니다.

** 국제신학교는 1년 6학기로 운영되고 있으며 능력에 따라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 국제신학교는 수시입학이 가능하며 한부분 사역자일 경우 학비 면제를 받습니다.

- 접수: www.wslseminary.com
- 이메일: inourlove@gmail.com

- 문의: 손에스더목사(010-3909-8844)
- 유튜브채널: www.RevivalForChurch.com